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노인 인지기능 결정요인 탐색

김건희 · 이예지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Introduction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한 요즘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로 대표되는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개인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주목하고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단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노인의 인지기능 결정요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중재로 노인의 인지기능저하를 지연시킬으로써 노인의 양질의 삶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Purpose

건강한 노후와 직결되는 인지기능의 유지, 증진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인지기능 결정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치매 등 인지장애 없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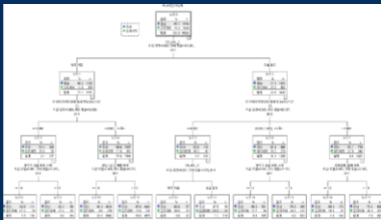
Methods

- 연구대상: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10,073명
- 투입변수: 인지기능, 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진단된 만성질환 수, 음주, 흡연, 운동, 기능상태, 여가활동, 경제활동, 배우자 유무와 왕래 빈도
- 자료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활용, x²검정에 기초한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CHAID) 적용, 분석

Results

○ 독립변인이 투입되지 않는 node 0에서 인지기능 정상 집단은 85.7%, 인지저하 집단은 14.3%이었다. CHAID 알고리즘의 node 분할기준이 되는 결정결과에 따라 노인의 인지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으로 나타났으며 IADL이 완전자립인 경우 인지기능의 정상비율이 높아졌다.

○ node 0의 정상 비율 85.7%에서 IADL이 완전자립인 경우(node 1) 정상 비율이 88.2%까지 높아졌고 인지저하 비율은 11.8%까지 낮아졌다. IADL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에 지난 1년 친구, 이웃, 지인과의 왕래 빈도가 거의 없던 경우는 정상 비율이 53.8%까지 약 31.9%p 낮아졌다.



Conclusions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및 친구, 이웃 등과의 왕래 빈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간호중재의 개발 및 적용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인지기능을 유지, 증진해야 하겠다.